

우선 책은 쉽게 잘 읽혔다. 읽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나는 대체로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나는 아직 낙오된 소수에 포함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소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적응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

자녀 교육비에 투자는 가치가 있는가 ?

존리는 학원 보내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다름.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자녀를 위해서는 최소 대학까지는 잘 보내놔야 자녀 인생에 있어 좋을 것 같다. 자산투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플랜B는 만들어 줘야 하지 싶다.

## 1장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 ?

### ■ 진입 장벽이 곧 수익이다.

- ✓ 아파트 = 청약통장 필요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 ✓ 상가, 빌라, 주택, 오피스텔 = 청약통장 필요X = 수요보다 공급 넘침

### ■ 책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 ✓ 주식의 큰 성공 =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있을 때 자신이 옳았을 때
- ✓ (사례 부동산) 국부론 - 불쾌함과 불명예가 심리적 진이장벽 역할을 해 수익 높음 (백정, 사형집행인, 여관, 술집) → 아이디어 = 집창촌 = 역세권 상업지역에 위치 = 재개발하면 대박

### ■ 소로스가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 ( feat. 칼 포퍼)

- ✓ 독자적인 "사고의 틀"(사고와 현실 사이의관계를 다루는 방법 - 철학주제)을 개발한 덕분에 투자에 성공했다고 주장.
- ✓ 사고의 틀 주요 키워드  
(1) 오류성 = 경험적 진실조차 확신할 수 없다. 과학적 법칙 진리등도 아직 틀렸음이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 →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믿음이 착각이라 밝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 ( 5G, 로봇, 생명공학 등.... 메타버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

(2) 재귀성 = 투자자의 생각과시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예시) 거품 = 유행하는 추세에 대한 착각(오류성) → 부정적 피드백(재귀성) →  
검증 통과 → 추세+착각이 강화(재귀성) → 의심 but 추세유지 → 추세반전 =  
반대방향 자기강화(재귀)

- ✓ 투자자들의 착각으로 만든 거품 = 기회 → 추세에 편승 후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기...  
( 이걸 정말 어려운 일이지 욕심때문에.....)

### ■ 찰리 멩거 ( feat. 칸트)

- ✓ 칸트 =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한 서양 철학의 필두
- ✓ <순수이성비판> -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 칸트 이전 철학자들 -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
- ✓ 칸트 이후 = 정신적 모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 ✓ 세상을 이해하는 **정신적 모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 찰리 멩거 = 독서를 통해 **전방위적 정신적 격자모형을 구축** → 독서 매우 중요... !!

### ■ 데카르트

- ✓ 원리를 통해서 개별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연역법
- ✓ (투자 예시) 성공 투자자들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 미리 습득 적용 → 삽질 시간 줄여줌
- ✓ **합리주의자** = 원리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물을 이해하는 연역법
- ✓ **경험주의자** = 개별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발견 ( 귀납법 )
- ✓ 두개를 짝꿍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할수록 투자법을 빨리 깨우칠 수 있다. → 투자뿐 아니라 어떤것이라도...

### ■ 소크라테스 : 너 자신을 알라.

- ✓ 개인의 주식투자 →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게 맞음....

- ✓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되면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쉬움.
- ✓ 피터린치도 내집마련부터 하기를 권장.
- ✓ **주택시장의 상대자** = 거의 개인
- ✓ **주식시장의 상대자** = 기관, 외국인 → 상대하기 힘들.

나의 투자 스타일 ... ( 100퍼 주식 보유 , 낙관론자, 빠져도 멘탈이 버팀.. 계속 고 ?)

## 2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 ■ 정부의 경기 부양책 끝은 인플레이션

- ✓ **밀턴 프리드먼** :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경제 옹호.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
- ✓ 화폐를 금속으로 찍던 예전엔 생산량 늘리기 힘들어 하이퍼인플레이션 X → 요즘은 종이 지폐라 찍어내는데 문제없어 인플레 위험이 증가
-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
- ✓ 대공황 = 너무 적은 통화량이 문제 = 경기부양 이론 탄생 ( 케인즈 )
- ✓ 현재 = 너무 많은 통화량이 문제,
- ✓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재정지출 + 복지확대 → 처음엔 경기부양 → 이후엔 인플레이션 → 자산가격 상승

### ■ 전략적 사고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 ✓ **마이클 포터** : 전략적 사고 = 노력과 재능보다 줄을 잘서자!
- ✓ <어떻게 경쟁요소들이 전략을 형성하는가 ( how competitive forces shape strategy)>  
 :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 것인가는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 ✓ 산업의 경쟁강도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 ( 결국 버핏이 정하는 원칙과 비슷)  
 (1) 신규 진입 위협 - 진입장벽이 낮다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기위해 지속적 투자가 필요 ( 예 - 스타벅스 )

(2) **■라이벌 기업간의 경쟁** - 독점 >> 과점 :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3) **구매자의 교섭력** - 기업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느냐가 중요...

○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는 비슷한 업체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익률 낮음. (구매자의 교섭력이 큰 경우)

○ 일반 소비자에게 판다면 이익을 남기기 더 쉽다 ( 구매자의 교섭력이 낮은 경우 )

(4) **공급자의 교섭력** - 공급자 교섭력이 크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음 ( 원자재를 쥐고있거나 하는 경우)

(5) **상품의 대체 위협** - 신기술과 혁신으로 상품이 사라질 위협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야함 ( 넷플릭스가 비디오 가게를 망하게 함 )

✓ 될만한 산업군에 투자해야 함.

: 항공 산업의 경우 진입장벽 높지 않고, 맨날 새 비행기사고 해야해서 큰돈 벌기 쉽지 않음) → **투자뿐 아니라 어떤 산업에 취직할지도 이를 고려해야함.**

###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모든 계획 경제에 반대!

✓ 사례1 [최저 임금제] 무리한 상향으로 경영환경 악화 초래..

✓ 사례3 [추수감사절] 공동생산, 공동분배 → 각자도생 → 풍년

✓ 시장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 오직 수요와 공급 = 세상의 조화

✓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외로움 → 구루, 국가, 종교 권위로 도피 → 노예화

### ■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 **[부작용1]** 임대료 통제 → 주인이 세금, 보수비용 쓰니 오히려 손해 → 주택 공급 하락 → 주거 문제 더욱 심각

✓ **[부작용2]** 세입자가 나갈 생각을 안함 → 사회적 비효율 증가

✓ **[부작용3]** 취업해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안감 → 실업률 증가 → 사람들이 만나가니 직장 근처에 집구하기 힘들 → 사회적 교통비 증가

- ✓ **뉴욕사례** = 임대료 형편없이 통제 → 집주인이 관리X → 뉴욕의 슬럼화

### ■ 시장경제와 사유 재산이 필요한 이유

- ✓ 인센티브X → 경제 주체가 일을 안함 → 시장이 없어 가격 메커니즘 작동X → 경제 망함
- ✓ 특정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 → 더 많이 공급하라는 신호로 해석 가능
- ✓ **사유재산제도** = 혁신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불어넣는다

### ■ 경제 민주화는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 ✓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 인플레이션 유발 → 실질임금하락 → 임금 상승 압력 → 인플레이션 심화... → 스태그플레이션 (불경기에 물가만오르는 상황)
- ✓ 워런 버핏 :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럴 리스크 경계 → 인플레이션 가능성  
: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에만 투자하라
- ✓ 노조의 위험성 :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할 때 "사회정의"를 표방

## 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 ■ 슈퍼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 ✓ **혁신산업** = 자원보다는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중요 (IT, 바이오, 첨단기술)  
: 뭉침의 힘{(1) 풍부한인재, (2)지식 전파 (3)인프라 제공} 이 작용하는 장소에서 발생
- ✓ 혁신산업 기반 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의 격차는 점점 커짐
- ✓ **기술혁신 + 세계화** → 선진국의 제조업 몰락 /But, IT, 바이오, 금융, 패션 등은 성장!!

### ■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통찰은 무엇인가?

- ✓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해야함.
- ✓ 서울, 판교 등은 IT, 금융, 바이오, 엔터 같은 혁신기업이 자리잡아 부동산 전망이 좋다.  
: 인재가 몰림 → 인적자본 외부효과 발생 : 인재 덕분에 인재 아닌 다른 평범한 사람도

덕을 보게 됨.

- ✓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 ✓ 2000년 이후 슈퍼스타 도시 집중현상 나타남 → 제조업의 몰락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동때문임

#### ■ 도시의 승리란 말속에 숨겨진 뜻

- ✓ 도시의 진정한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 ✓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 → 음식문화, 패션, 엔터,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
- ✓ 즐거운 곳에 살기위해 더 비싼 집값이란 비용을 치르고, 집값이 비싼 도시일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높음. → 집값이 싼 동네라고 막 매수하면 안됨..
- ✓ 도시의 인제가 중요시 하는 요소 = **자녀 교육과 안전**

#### ■ 서울에 집을 사야하는 분명한 이유

- ✓ 애덤 스미스 ( 국부론 ) →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
- ✓ 분업이 가능하려면? → 사람이 한곳에 모여야 함 = 도시로의 인구 집중 → 도시가 커질수록 분업의 이익이 커짐.
- ✓ 수도권 억제정책 = 세상을 조금 평등하게 만들순 있지만, 세상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만든다. 결국 다시 서울로 집중된다.
- ✓ 물려도 서울에 물려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 ■ 비교 우위론은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한다.

- ✓ 데이비드 리카도 : 비교 우위론을 내세워 국제 교역이 유리하다고 주장
- ✓ 리카도의 유산 1 : 비교 우위론  
: 제조업 공장들이 싼 곳을 찾아 해외로 가면 결국 한국에는 본사와 연구소만 남게 될 것이다. → 결국 인재가 있는 서울에 위치할 것
- ✓ 유산 2 : 노동가치설 = 가격은 노동이 결정한다 ?  
: 노동 가치설은 쓰레기...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가격은 공급자(노동자)가 아닌 수요자(소비자)입장에서 결정된다.

- ✓ 유산 3 : 차액 지대론

: 인구가 늘어날수록 차액지대는 늘어나고 비옥한 땅 주인은 더 부자가 된다.

: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비옥한 부동산을 사야함 = 서울

### ■ 국부론에서 얻는 부동산 투자힌트 3가지

- ✓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엔진이다. 정부가 이를 억압하면 안됨.

- ✓ (1) 지대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가 임대료 등은 수익률,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오른다고 주인을 욕할 게 없다.

- ✓ (2) 지대는 소득이 올라갈 때,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때 오른다.

: 집값은 경제상황이 오를만 하게 되었기에 오르는 것이다.

- ✓ (3) 호황일 때 토지 소유자가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불황일때는 노동자만 고통 받는다. : 호황일 때 월급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오름.

### ■ GTX가 생기면 주변 집값과 상가값은 어떻게 변할까 ?

- ✓ 지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이다 (애덤 스미스)

- ✓ (1) 도로 개통은 두 지역 차이를 줄인다 : 동탄, 파주 운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 ✓ (2) 동탄, 파주 운정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상가는 서울과 경쟁. 지위 약화, 반대로 서울의 상가는 더 잘될 가능성 높음.

- ✓ GTX의 효과는 운임 요금에 달려있다 → 너무 높으면 그돈 내고 서울에 월세를 사는게 나옴.

### ■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 ✓ 제임스 뷰캐넌 (노벨 경제학상) : 정치인, 부동산 대책 다 믿지는 말자..

- ✓ 공공선택이론 : 정치인, 공무원이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핀다는 말은 다 구라임.

: 사회 후생, 정의, 복지를 내세우지만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비대화시켜 자신의 발판으로 사용하기 쉬움. → 정부 조직 비대화 → 재정적자 상승

- ✓ 분양가상한제 또한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 정책 → 정치인이 경제 원리에 무지한 투표

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일 뿐..

#### ■ 서울 재개발 - 재건축 규제가 경기도민을 죽인다 ?

- ✓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방법( 저자주장)

: (1) 양도소득세 중과 철회 (2)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규제 폐지 (3) 임대주택 건설 확대

- ✓ 정부는 엉뚱하게도 경기도에 50만채 정도를 더 공급함.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데, 집이 남아도는 경기도에 폭탄 공급. → 국가적 비효율, 낭비 발생 ( 교통비, 도로 건설비용 등)

: 이렇게 한 이유 = 서울에 규제 풀면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 → 대중이 집권당을 비난하고 등돌릴 가능성 있음... → 결국엔 건물 사용연한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할 수 밖에 없음. → 서울 새집으로 또 몰려서 경기도 집값은 또 타격 [공공선택이론 적용 가능 사례..]

#### ■ 1가구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 ✓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킴. → 다주택을 임대로 주기 때문에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 ✓ 1주택으로 제한하면 주택 매물과 전세물량 급감 → 전세가 폭등을 유발
- ✓ 다가구 주택 보유자는 주택 건설에 국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투하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져온다.
- ✓ [과거 사례 1] 전세규제 조치 → 전세 폭등 유발
- ✓ [과거 사례 2] 소액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대료 폭등

### 4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 ■ 케인스는 누구 ?

-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완전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
- ✓ 불황이 오면 정부 지출을 늘려라 ! →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이 와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수단



- ✓ 케인스가 마르크스 사상을 폄하한 이유 : 경제학은 사회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적 태도 견지. But,,,, 마르크스 주의자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맞추어 그에 맞는 인간상을 생각해내는 점성술같은 접근 방식.

#### ■ 케인스의 투자방법 = 워런 버핏과 유사

- ✓ (1)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 대중과 반대로 투자하라.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 대다수가 좋다고 동의하면 이미 비싸다.
- ✓ (2) 집중투자하라  
:
- ✓ (3) 장기투자하라  
:
- ✓ (4) 신용투자 하지 마라  
:
- ✓ (5)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
- ✓ (6)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 ✓ (7) 싸게사라  
: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가격을 찾는다 (저PER주 : 순익에 비해 주가가 싼 주식)  
(저PBR주 : 장부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팔리는 주식)

#### ■ 분산투자 ? 집중투자 ?

- ✓ 마코위츠 : 같은 기대수익을 거두면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산투자법 ( 거대 자산 운용기관에 도움 )
- ✓ 마코위츠가 말하는 위험 = 수익률의 분산도 =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통적 위험의 의미

와 다름

- ✓ 개인투자자 → 너무 많은 분산투자는 수익률이 좋지 않음 → 마코위츠의 방식은 개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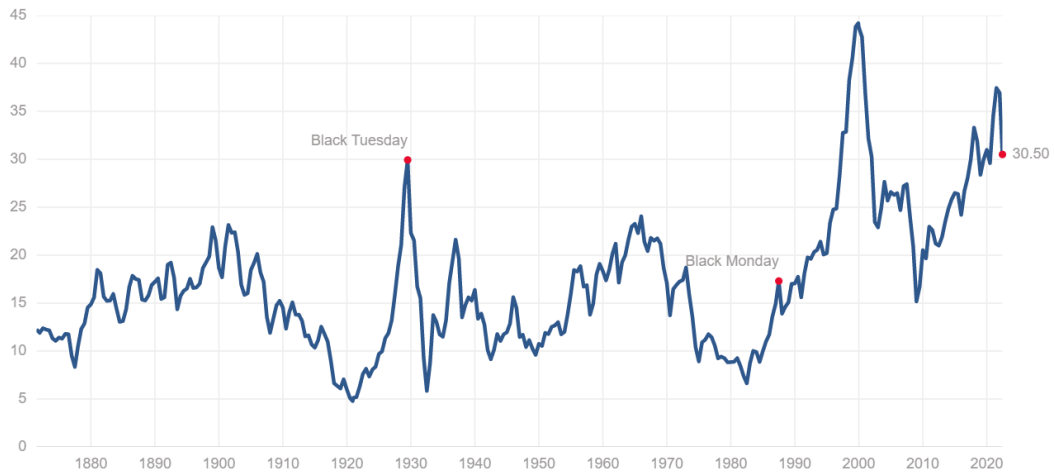
### ■ 효율적 시장이론이 맞는 것인가 ?

- ✓ 시장이 효율적이다? = 너무 효율적이라 새로운 정보를 지체없이 가격에 반영 → 정보를 얻는 순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남들보다 초과수익 볼 수 없다.
- ✓ 효율적 시장이론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도, 차트 분석법도 모두 엉터리.
- ✓ 효과있는 투자법1 = 과거3년간 투자수익률이 낮은 주식군에 투자하면 3년간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음 (근시안적 본능-최근 정보, 결과만 중시, 장기적 정보, 결과는 등한시) → 계속 유효할 가능성 높음
- ✓ 효과있는 투자법2 =과거 200년을 검토해보니, 200일 이평선이 상승 전환할 때 사고, 하락 전환할 때 팔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 앞으로도 유효할지는 의문.....
- ✓ 너무나 효율적인 주식 시장 보다는, 덜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이 돈을 벌기 더 쉽다. → 부동산 정보는 매우 개별적이고 지역적이어서 즉각 모든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 But,,,,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점점 효율적으로 변해가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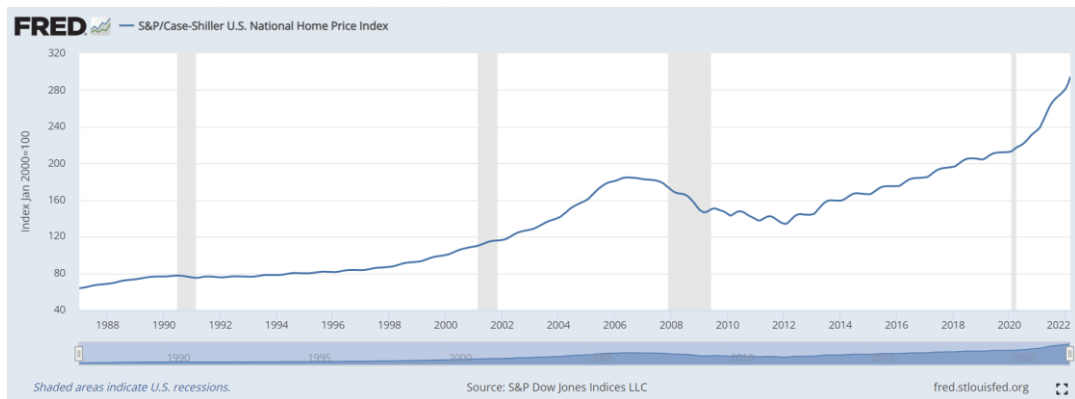
### ■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을 미리 알 수 있는가 ?

- ✓ 거품을 만들어내는 중요 요소중 하나 = 인간의 무리짓기 행위
- ✓ 인간이 무리짓는 이유 -
  - (1) 인간은 사회적 압력에 약하다.(다수의 의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
  - (2) 사람은 전문가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음
  - (3) 정보 캐스케이드 효과. (예)식당을 선택할 때 음식을 보지않고, 손님이 많은지만 보는 것
  - (4)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화를 좋아하고 입소문을 통해 정보 공유하기 쉽다.
- ✓ 사람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 있음 ( 닷컴버블때도 주변 모든 주식이 거품이 끼여있으니, 내 주식도 특별한 거품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림) → 절대평가가 필요함.
- ✓ 실러의 주식 과열을 알 수 있는 지표 = CAPE ( Cyclically Adjusted Price-Earning Ratio ) =

경기조정된 P/E 비율 = 물가조절한 실질주가를 물가조절한 실질 10년간 평균 이익으로 나눔



- ✓ 실러의 부동산 과열을 알 수 있는 지표 = S&P/Case-Shiller Index = 미국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올랐는지 알 수 있는 지표



✓

## 5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 ■ 과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인간

- ✓ 베블런재 ( 보석, 명품, 사치품) = 가격이 올라갈수록 잘팔림., 비싸면 비쌀수록 과시 효과가 올라감.
- ✓ SNS가 발달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됨.
- ✓ 강남 아파트 열풍의 이유 →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받길 원함.

## ■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

- ✓ 2018년 노벨 경제학상 - 폴 로머 →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내생변수이고 경제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선진국은 기술을 개발해 경제 성장에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음. ( 내생적 성장이론 에서...)
- ✓ 폴 로머 이전의 경제학자들도 기술이 성장에 큰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 → But,,, 기술은 국가가 맘대로 더 투입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아니라고 판단. ( 외생변수로 봄)
- ✓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이 발전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장에 유리함. → 해외투자를 고려한다면 미국주식을 해라!!!!

## ■ 자산의 양극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 빌프레도 파레토 (파레토 최적) : 강제적 소득분배는 사회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없고, 오로지 자유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 ✓ 부동산 투자자 : 양극화 흐름에 편승하자. 서울 편중현상 +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심화. 상급지를 못들어 갈 것 같으면, 그 주변이라도 노려야 함.
- ✓ 주식 투자자 : 분산 투자 시 20퍼 소수종목에서 80퍼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상승세 종목 수익률을 극대화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 ■ 블랙 스완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은 ?

- ✓ 블랙 스완 : 희귀하고 잘 나타나지않는 현상을 의미함. 확률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않은 일이 우리의 수학적 계산보다 자주 발생한다.
- ✓ 금융 상품의 리스크는 수학적 계산 확률보다 더 크다. 리스크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 돈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 : 자본주의는 혁신으로 성장한다.

- ✓ 창조적 혁신이 나타나야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성장함
- ✓ 기업가가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기업가들이 혁신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향유하고 또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함.
- ✓ 슉페터가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한 이유 :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수의 성공한 사람은 다수의 대중에게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닌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줌 → 다수의 뒤처진

대중은 소수의 성공한 자에 대해 질투, 언한, 분개를 가지게 됨. → 특히 현장경험 없고, 사업에 지식도 없이 글과 말로만 먹고사는 좌파 지식인들이 낙오한 대중을 선동할 것임.

### ■ 이성을 활용하여 느리게 생각하자

- ✓ 과도한 낙관론과 자신감은 투자를 망칠 수 있음
- ✓ **손실 회피 현상** : 대부분 투자자는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두려워하여 손절매를 못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함
- ✓ **보유효과** : 자신의 재산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과대평가하여 적당한 시기에 팔지 못함
- ✓ **땃내림효과** : 주변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면 자신의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지 못함.

## 6장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 ■ 자본주의는 공평하지 않다

- ✓ 토마 피케티 ( 21세기 자본) : 세상은 불공평함
  - (1)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됨
  - (2)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자본 이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함 → 자본을 가진 부자는 임금 근로자보다 훨씬 빠르게 돈벌 → 빈부격차 심화
  - (3) 불평등 확대의 해결책으로 전세계적으로 누진적 고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매기자고 주장함.
- ✓ 좋은 얘기지만,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맹점이 있음 → 사례들
  - (1) 프랑스만 부유세를 올림 → 부자들이 다른나라로 떠나버려 경제 침체 발생
  - (2)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사회주의정책 (부의 재분배,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수 늘림 등) → 사회주의는 처음엔 잘 돌아가는 듯 하지만 정부 지출 폭증 → 망함.

### ■ 금본위 화폐 시대 끝 → 화폐를 찍으며 인플레이션 발생

- ✓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경제 침체시 마다 천문학적 돈을 찍어내게 됨 →

화폐가치가 떨어짐 → 인플레이 발생 → 부채를 발생시킨 사람이 이득 (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에 갚으면 됨 - 빛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짐 )

- ✓ 인플레이에서 유리한 비즈니스 = 보험 → 지금 화폐로 받고 후일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지불 약속을 하는 비즈니스
-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적 상승. → **화폐를 모으기 보단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모아야 한다!**

### ■ 교육비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유산을 물려줄까

- ✓ 연구 결과 : 물가 상승률 제외한 실질 투자수익률 기준으로 주식투자수익률 = 연7퍼 / 금, 채권, 부동산 투자수익률 = 연 3퍼 미만 / 대학 졸업장 투자수익률 = 연 15퍼 이상
- ✓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 투자의 중요성은 더 높아짐.
- ✓ 따라서, 미래에도 부동산 투자 시 학군은 반드시 고려해야함.

### ■ 중국의 미국 압박

(1) 페트로 달러의 올가미를 벗어났다

- ✓ 미국의 최대 수출품 = 달러 : 달러를 찍어 그돈으로 개발도상국의 값싼 생산품을 삼 + 에너지, 식량을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
- ✓ But, 중국이 상하이에 위안화로 석유거래 시장을 만들어 미국을 압박함...( 반미 국가들 참여)

(2) 미군의 해상 포위망을 뚫다.

- ✓ 일대 일로 = 일대 ( 육로로 중동 석유 생산국에 연결되는 것) + 일로 (해상으로 중동 석유 생산국에 연결되는 길)
- ✓ 석유, 원자재 등의 수송로를 확보하고, 생산한 제품을 팔 유럽시장까지 연결하는 수송로

(3) 2050 중국몽의 현실화 선언

- ✓ 중국 제조 2025 : 2025년까지 첨단 10개 분야에서 세계1등 하겠다. → 트럼프가 관세 때 리면서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발발..

### ■ 중국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

- ✓ 미국 리먼 쇼크 + 미국 엘리트 층의 오판
- ✓ 중국이 자유 시장 경제에 들어오면 중산층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발달 + 시장 경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미국이 낙관. → 이는 오판..
- ✓ 공산 독재 체제는 감시 감독 비용이 많이 들어 몰락 예상 →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체제를 만들어 버림.

## ■ 미국의 중국 압박

### (1) 군사적 압박

- ✓ 인도 태평양 지역 : 전세계 물동량의 60퍼센트가 발생 ( 남중국해/ 므라카해협 )
- ✓ 므라카해협 = 한,중,일,대만 석유 사용량의 80퍼 이동 ( 미국이 장악중)
- ✓ 남중국해 난사군도 =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밝혀짐. + 저세계 어획량의 10 퍼센트 → 중국이 난사군도에 깃발 꽂고 다른 작은 나라들 몰아내려 함. → 미국은 여기서 "항해의자유 작전" 을 펼치며 중국 압박
- ✓ 미국은 중국을 군비 경쟁 레이스에 말려들게 해서 자멸시키려는 것.

### (2) 기술 전쟁.

- ✓ 중국은 우주굴기, 군사무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분야에서 미국 압박
- ✓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업이 자본 조달을 못하게 주식 시장 퇴출 + 거래 금지 조치

### (3) 무역 전쟁.

- ✓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관세 때림 → 중국 내 자유 진영의 기업들을 탈출 시키는 것이 목표
- ✓ 세계의 공장으로는 베트남, 인도를 키우겠다는 의도.

### (4) 지정학적 전쟁

- ✓ 미국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지지 +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 압박 하고자 함 +
- ✓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편에 서는게 유리할 수 있겠다...

